

研究論文

16세기 星州지역 士族의 交遊와 書院 건립계획 -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

김 소 은*

I. 머리말	IV. 영봉서원의 건립 계획
II. 이문건의 교유 범위와 내용	V. 맺음말
III. 성주지역 지방관 및 사족들과의 교유	

I. 머리말

조선시대 양반은 4祖 내 顯官의 유무와 과거를 통한 관직에의 진출, 학문의 계승여부, 통혼, 교제인물의 범위 등을 그 지표로 하여 계층화 세력권화 되어갔다. 이에는 상호 교제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그 교제의 범위는 친인척과 同學, 同榜, 관직에서의 同僚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될 수 있었다. 즉, 양반층 내에서의 교유관계는 혈연·地緣·學緣의 복잡하고 中層的인 구조의 交遊網을 형성하게 된다.

士族들의 교유와 交遊網의 형성은 중앙에 편중된 다양한 정보를 경향 각지에서 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이었으며, 또한 각자가 지향하는 사회적·政治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유 활동은 생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중세사

1) 兩班士族들의 交遊關係에 대한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다.

己卯土禍로 두 형을 잃고 연이어 조카 李輝가 을사사화의 단초를 연 인물로 지목되어 참형에 처해짐으로써 이문건의 家系는 급격하게 몰락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문건 자신도 연좌죄인으로서 星州에 유배되어 20여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을 유배인의 신분으로 謫居하게 되었다.

가문의 衰落을 목도하면서 그는 실로 자신의 解配와 復權 그리고 가문의 유지와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孫子女와 從孫子 등 후손의 敎育에 열중하였으며, 경제적 기반의 유지 보전과 富의 축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槐山에 入鄉處를 마련하게 되었다.²⁾

유배기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默齋日記』(이하 『日記』)를 통하여 그의 생활 약식과 가계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接賓客의 다른 측면으로서의 交遊活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문건 자신과 가계를 위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장과정과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人的 交遊網의 동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즉, 원근의 친인척은 물론 仕宦 동료들과의 교제를 지속하면서 그는 중앙의 정보와 경제적인 지원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유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중앙과 격리된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에서 이문건은 중앙관직을 역임한 바 있는 권력에 밀접한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물로서 인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문건은 경제적인 축적을 통하여 괴산에 입향처를 마련함으로써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성취해가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16세기 중반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던 영남지역에서 사족의 형성 또는 세력 성장에 동반하여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향촌사족의 결집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현영, 「조선시기 ‘사족지배체제론’의 새로운전망-16C 慶尙道 星州지방을 소재로 하여, 『韓國文化』23(1999).

이성임, 「16세기 李文樞家の 收入과 經濟生活, 『國史館論叢』97(2001).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전라문화총서4(2001).

정진영, 「조선시대 지방양반들의 일상생활, 『고문화』53(1999).

2) 김소은, 「16세기 兩班家の 婚姻과 家族關係-李文樞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97(2001); 「李文樞家の 경제운영과 지출-槐山入鄉을 관련하여, 『古文書研究』21(200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558년 牧使 盧慶麟의 부임 이후 이문건을 중심으로 한 星州李氏들의 서원 건립운동은 이문건의 향촌사회에서의 역할 나아가서는 그가 기존에 확보한 인적 交遊網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白雲洞書院의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받아서 힘입은 바 되어서 지역 유생들의 독서처를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鄉村 士族과 地方官의 동의 하에 기존의 星州李氏 影堂祭를 확대하여 자신들의 祖先을 제향하는 유교적인 의례로의 발전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성주의 土姓士族인 星州 李氏의 사회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書院의 건립이 당시의 시대적 경향이었다 할지라도 이를 계획하고 진행해가는 과정에서의 이문건의 역할이 그의 생애를 통해 확보된 人的 交遊網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주 인근 지방관과 鄉村士族層들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인식하고 그 교유활동과 연장선상에서의 서원건립계획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문건의 교유 범위와 내용

1. 친인척과의 관계

이문건은 星州李氏 文烈公 李兆年의 후손으로, 조선 개국공신인 李稷의 직계손이다.³⁾ 李兆年 이후 星州를 근거지로 上京從仕 하던 성주이씨는 李稷 이후 서울 근교인 楊州 盧原 일원에 先塋을 마련하고 移居하게 되었다. 이들 李稷 직계 후손들은 문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하는 한편 왕실 및 훈구세력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그 사회적인 門地를 높이고 있었다. 李師厚를 高祖로 하는 그 직계손들은 왕실과 창녕성씨, 남양홍씨, 파평윤씨, 고령신씨 등 당시 최고의 문지를 가진 집안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상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일한 가계와 2대에 걸쳐 連婚하는 경우도 있었다.⁴⁾

3) 朝鮮初期 最上級 官人層에는 麗末鮮初의 新興勢力이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權門世族을 비롯한 高麗의 舊勢力이 참여한 형태로 새롭게 재편되었던 것이다. 李東熙 「朝鮮初期 官人層 研究 — 高麗와 朝鮮 支配勢力間의 關係 규명의 일환으로」, 『국사관논총』72(1996)

이와 같이 가문의 혈통과 관직 진출 여부에 의하여 신분적 정체성이 규정되고, 이것은 다시 관직 진출로와 통혼망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마침내 보수화해가는 지배신분층을 구성하는 것이 조선 초기 양반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문건의 시묘기로부터 유배기까지 왕래가 지속되었던 인물들은 李師厚의直系孫들과 外孫 그리고 姻戚에 해당하는데, 이문건의 조부인 叔生은 양증조인 繼寧의 家系에 立後되었고 이후에는 養家는 물론 生家와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하였는데, 형과 장손인 이휘가 일찍 사망하였으므로 兩家の 모든 제사를 이문건이 설행하였다.⁵⁾

한편, 재산상속과정과 제사의 윤회봉사를 매개로 하여 외가인 고령신씨는 물론 姨從四寸인 안동김씨·권씨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제사에는 內外孫은 물론 사돈간에도 왕래하였고, 유배이전에는 사촌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⁶⁾

이문건은 1516년(중종 11) 安東金氏 金彦默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丈人 金彦默은 義城金氏 金益謙의 딸과 혼인하여 仁宗의 妃의 生父인 朴壕와는 同壻間이 된다. 이문건의 부인과 인종비는 이중사촌간으로 유배 이후에도 朴大妃로부터는 賜給物件이 전달되고 있다.

친인척 및 內外孫들은 시묘생활을 마치고 司諫院 正言으로 復職한 후 관청에서의 업무를 통해서도 긴밀히 접촉하였으며, 유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왕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在京士族으로서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人脈의 연결 고리로서의 이문건의 유배생활을 지원하였고, 이로써 볼 때 士族들간의 혼인이 사회적인 신분상승과 경제적 致富, 지속적인 가문의 발전을 보장하는 한 방편이었다고 하겠다.

4) 金素銀, 「李文樞의 生涯와 默齋日記의 構成」, 『洪景萬教授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2002), 144쪽.

5) 이 시기 無子女인 경우 가까운 가계로부터 養子를 들여 繼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從姪인 李德應 역시 正寧의 孫인 損에 立後하였다. 한편 사마방목에는 이문건의 부친 允濯형제가 繼寧이 아닌 咸寧의 直系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문건 형제에 이르러서야 계녕의 曾孫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시기 養子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出系한 이후에도 심정적으로 生家와 상대적으로 더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함녕의 직계임을 자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CD-ROM 司馬榜目』(1997).

6) 『日記』권1, 1537년 3월 25일 ; 4월 11일.

2. 科擧 및 仕宦을 통한 交遊 關係

이문건은 1513년(중종8) 進士試에 합격하고(7) 1528년 別試文科에 급제하였다.8) 그러나, 두차례의 연이는 사회로 인하여 그 家系가 치명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仕宦의 기회를 잃게되었다. 이문건 형제는 成守琛, 成守琮, 趙昱, 丁煥, 丁燠, 羅混, 許伯琦, 洪奉世, 鄭源, 尹寬, 洪暹, 李希閔, 尹忭, 李夔, 李延慶, 朴紹, 趙希尹, 奇遼등과 함께 조광조의 문인이었으며, 두 형은 모두 기묘사화의 와중에 사망하였다. 이어 조카 이휘가 을사사화의 단초를 열면서 참형에 처해지고 이문건도 연좌죄인으로서 유배되었으며, 이후 송희규, 정황, 성세창, 권응창, 유경십, 李彦忱, 김홍도 등의 피화인들과 교류하였다. 이들 被禍人들은 義理를 존중하여 각자의 가정 의례 등에 상호 동참하고 부조하면서 동지적인 유대를 지속해갔으며,9) 이들 중 많은 수는 복권되어 주요 관직을 역임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丁庵 門人들과의 交遊와 함께 生進科·文科 同榜人, 仕宦 同僚들과의 긴밀한 交遊關係는 仕宦 및 유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었다. 이들 인물들과의 關係를 정리해보면 대략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유배이전 仕宦期까지는 交遊가 있었으나 유배 이후 단절된 인물들로 奇遼, 朴翰, 趙世英, 姜顯之, 閔齊仁, 李浚慶, 崔孺, 鄭世虎, 宋世珩, 許沆, 梁希傳, 趙晟, 金鋼, 林洙, 鄭郁, 李繼禎, 德符, 柳泗, 仲召, 李塘 등이 있다. 이들은 同榜人 및 門人들이며 사환기간에는 동료로서 官廳에서 항상 접촉하였고 官廳 밖 모임에서도 시사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關係를 유지하였다. 또한 각자의 가정 의례 등에 대하여 상호부조하고 지원하는 關係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유배 이후에도 人便 등을 통하여 간혹 편지나 시문을 종종 주고받으면서 소량의 선물을 보내오는 경우이다. 이에 姜濤, 李翎, 李驚, 허백기, 李驚, 김명윤, 韓叔, 김익수, 鄭郁, 羅世續 등과 같은 인물들이 해당된다. 許伯起는 成川

7) 宋純, 『俛仰集』, 卷6, 生進榜目 正德8年(癸酉) 8月 20日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CD-ROM 司馬榜目 (1997).

9) 『默齋日記』권 1, 1535년 11월 27일, 1537년 3월 25일, 권2, 1545년 12월 2일, 1546년 1월 16일, 권9, 1563년 12월 25일

官(1557) 재직시에 편지 왕래를 하면서 각종 물자를 지원하였다.¹⁰⁾ 羅世纘·鄭郁 등도 지방관으로서 이문건의 遠地田畝와 奴婢를 완호해주거나 칭념을 보내주는 동료들이었다. 정암문인인 尹寬은 安東判官(1545년)으로 부임하였고, 趙昱은 1548년 星州를 방문하여 龍淵寺에 7일간 함께 지냈으며 長水官(1555)으로서 休默의 차운시를 보내왔다. 한편, 성수침은 편지 왕래가 지속되었으며,¹¹⁾ 巨濟에 付處된 丁煥과도 水營의 관리와 노비편에 1559년까지 편지 왕래가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관이나 중앙 관료로서 稱念·賑資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편지·詩文 등의 왕래는 물론 왕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인물들이다. 洪奉世, 申潛, 姜顯, 黃季玉, 宋純, 沈思恭, 宋希奎, 權應挺, 曹光遠 등은 이문건의 유배 생활을 전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문건의 형편을 보살피고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세력이었다. 먼저 洪奉世는 兄 李忠樞의 절친한 친구로서 여묘생활과 사환기를 통해 이문건家の 상장례와 각종 家內 儀禮에 참석하였다.¹²⁾ 綾城官(1551년)으로 재직하면서 書冊 등을 보내주었고¹³⁾ 尙州牧使(1555년) 시기에는 이문건을 두차례나 尙州를 방문하도록 하였다.¹⁴⁾ 또한 손녀 숙희의 혼사도 홍봉세의 중재로 성사될 수 있었다.¹⁵⁾ 申潛은 1513년 生進試 壯元으로서¹⁶⁾ 杆城官·尙州牧使(1552년) 등을 역임하였으며 藥物을 비롯하여 賑資·歲資 등의 명목으로 각종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¹⁷⁾ 黃季玉은 善山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각종의 모임과 행사를 통하여 왕래하였다.¹⁸⁾ 宋純은 善山府使(1553년)·全州府

10) 『默齋日記』 권8, 1557년 12월 29일, 1558년 4월 18일 .

11) 『默齋日記』 권2, 1545년 12월 2일, 1546년 1월 16일, 권5, 1551년 1월 24일, 1월 25일, 10월 5일, 1552년 8월 18일, 10월 12일

12) 『默齋日記』 권1, 1537년 1월 8일

13) 『默齋日記』 권4, 1551년 1월 16일, 권5, 1552년 1월 16일, 1552년 7월 29일, 9월 15일, 10월 2일~4일

14) 『默齋日記』 권7, 1556년 7월 27일~8월 2일

15) 『默齋日記』 권9, 1561년 윤5월 24일

16) 신잡은 申叔周의 曾孫으로서 이문건의 모친이 申仲周의 孫女이므로 외가쪽으로 8촌간이 된다

17) 1554년 12월 發熱로 갑자기 사망하자, 이문건은 그를 위해 素食하고 輓詞를 썼다
『默齋日記』 권2, 1548년 2월 18일, 권5, 1551년 3월 16일, 10월 5일, 12월 20일, 12월 22일, 권6, 1553년 2월 11일, 7월 23일, 7월 29일, 8월 20일, 8월 21일, 권6, 1554년 12월 3일, 12월 16일

18) 『默齋日記』 권5, 1551년 12월 30일, 권6, 1553년 7월 7일~14일, 1554년 11월 11일~13일, 권7, 1555년 8월 11일~13일, 1557년 2월 11일, 권8, 1558년 11월 24일

尹(1558)·羅州牧使(1562)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의 賑資와 膳物을 보내왔고 노비의 추쇄와 收貢, 전답의 收租를 돌보아주었다.¹⁹⁾ 宋希奎는 大丘府使(1546년)가 되었으나 1547년 乙巳土禍로 유배되었으며 1551년 放還되었다.²⁰⁾ 이후 그 형제인 宋應奎·宋瑞奎 등과도 교제가 활발하였고²¹⁾兩家의 대소사를 서로 의지하면서 오랜 친분을 유지하였는데,²²⁾송희규가 사망하자 상장례 준비에도 적극 참여하였다.²³⁾ 沈思恭은 大邱府使(1548~1553년)를 역임하면서 음식물을 비롯한 각종의 생활용품, 祭需用品 등을 제공하여 주었다.²⁴⁾

曹光遠은 1555년 을묘왜변 당시 慶尙道都巡邊使로 활동하였고²⁵⁾ 이어서 경상도 관찰사(1555년 10월~1556년 11월)를 역임하였다.²⁶⁾ 權應挺은 康津·端川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1553년 放還된²⁷⁾ 후에 慶州府尹(1557년)²⁸⁾·安東府使(1561년) 등을 역임하였다. 권응정과는 빈번한 편지 왕래와 방문이 이루어졌으며²⁹⁾ 여행과 音樂, 書畫, 詩文의 교환 등으로 교제를 지속하였는데³⁰⁾이문건을 경주와 안동에 각각 초치하였으며,³¹⁾ 음식물과 의학서적,³²⁾封餘物 등을 지급해주었다.³³⁾ 星州 지역을

19) 『默齋日記』 권6, 1553년 5월 13일, 권8, 1558년 8월 23일, 10월 25일, 11월 3일, 권9, 1561년 4월 19일, 1562년 2월 6일 4월 8일 9월 1일

20) 『默齋日記』 권5, 1551년 6월 10일

21) 『默齋日記』 권2, 1545년 10월 10일; 10월 28일, 권5, 1552년 6월 19일.

22) 『默齋日記』 권5, 1551년 12월 27일; 12월 28일, 권6, 1552년 1월 7일 1월 8일, 1552년 6월 22일~23일

23) 『默齋日記』 권8, 1558년 3월 7일, 3월 9일, 3월 11일, 3월 16일, 4월 12일, 4월 17일, 4월 19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8일, 10월 15일

24) 『默齋日記』 권4, 1548년 6월 27일, 권5, 1551년 5월 21일, 6월 25일, 10월 26일, 11월 4일, 11월 21일, 12월 29일; 1552년 6월 19일, 6월 25일, 8월 27일, 10월 26일, 12월 3일, 12월 28일.

25) 『默齋日記』 권7, 1555년 5월 27일; 8월 21일.

26) 『默齋日記』 권7, 1555년 10월 3일, 1556년 1월 18일~20일, 1월 21일; 5월 1일, 5월 29일, 8월 26일.

27) 『默齋日記』 권6, 1553년 4월 6일, 4월 8일, 4월 12일

28) 『默齋日記』 권8, 1558년 1월 15일

29) 『默齋日記』 권6, 1553년 4월 14일, 4월 26일, 6월 9일, 8월 25일~28일, 9월 26일, 11월 11일

30) 『默齋日記』 권6, 1553년 6월 11일~13일, 10월 7일, 10월 15일, 10월 28일, 11월 3일, 11월 23일, 12월 2일.

31) 『默齋日記』 권8, 1558년 3월 27일~28일, 5월 15일, 윤7월 27일~8월 1일, 권9, 1561년 1월 10일

32) 『默齋日記』 권8, 1558년 6월 11일; 7월 30일; 10월 20일; 12월 10일.

중심으로 안동권씨는 향촌사족으로서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權應昌 및 그 外家人 呂氏들과의 교류를 통하여서도 이문건의 향촌사회에서의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生進榜 同榜人으로서 申潛, 宋希奎, 宋純, 黃季沃와 생원과 邊廣 등이 155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大菴寺에서 做榜會를 열고, 14 일에는 善山府使인 宋士一의 生辰宴에 참석하였다. 3일간의 연회에서는 琴笛 연주와 歌舞를 즐기며 罰酒를 주고 받았는데, 申潛은 여전히 壯元으로서 우대를 받았으며 이문건 역시 年齒에 관계없이 우대받았다고 한다.³⁴⁾

이로써 볼 때 同榜의 교류는 一生동안 특정인을 규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交遊網을 형성하는 근간이었다고 하겠다. 즉, 同榜人들은 仕宦時에는 동료로서 상호의견을 보완하고 관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력이 되었다. 한편, 유배시기를 당하여서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든든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각지의 지방관으로서의 배려와 지원은 이문건이 유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향촌사족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하고도 든든한 지원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生進科 및 文科 同榜人이나 同門, 同僚들은 실제로는 血緣·學緣·地緣이 복잡하게 얽히고 관계가 중첩되어 親疎의 정도가 결정되었다. 전생애를 통하여 형성된 복잡하고 중층적인 교류망은 人情에 좌우되는 성격을 가지며 이문건의 유배지에서의 교류·활동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향촌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통하여 오히려 기문의 유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위하여 경제적 축적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생활 양상을 볼 수 있다.

33) 『默齋日記』 권9, 1563년 6월 9일-6월 15일

34) 『默齋日記』 권6, 1554년 11월 12일

III. 성주지역 지방관 및 사족들과의 교류

1. 지방관 및 관속과의 관계

조선 초기의 왕정은 유교 이념을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수령권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향촌질서는 국가의 체제 안정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³⁵⁾ 경상도 감영에는 監司(중2품)와 그 휘하의 首領官인 經歷(중4품) 혹은 都事(중6품), 判官·敎授(중6품) 및 中9품인 訓導, 審藥, 檢律을 각 1명씩을 두었으며, 이외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영리와 천역을 지는 영노비 등이 있었다.³⁶⁾

星州는 直村과 八莒, 花園, 加利 등 3개의 屬縣으로 이루어졌고, 중앙으로부터 牧使와 判官, 敎授 등의 관리가 파견되었다. 星州 牧使는 주로 詞訟·獄訟·鄉試·賑濟 등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判官은 각종의 역을 부과하고 貢納을 관장하였다. 중앙권력을 대행하는 지방관의 통치를 규찰하고 조정하기 위한 또 다른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監司와 都事가 상시적으로 道內를 巡行하였으며, 御史·敬差官 등이 災傷, 軍籍, 監軍, 救荒 등의 특수한 임무를 맡아 수시로 파견되었다.³⁷⁾ 한편, 牧使와 判官이외에도 지방관청에서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在地勢力으로서 향리층이 세습적으로 鄉任을 담당하였고 勸農官·監考·監官 그리고 各色掌 등의 官屬들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주요한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³⁸⁾

또한 留鄉所의 좌수와 별감 그리고 司馬所를 중심으로 하는 鄉村勢力이 그 세력을 조정하면서 지방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표방하였다.

35) 이태진, 「사림세력의 활동-향촌질서의 재편운동」,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264쪽.

36) 건국 초에는 경주에 있다가 세종 초부터 尙州로 옮겨 임진왜란 당시까지 존속되었는데, 경상도의 地廣人衆을 이유로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江西를 右道, 江東을 左道로 分道하기도 하였다. 중종 14년(1519)년에는 감사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右道감사는 상주목사를 左道감사는 경주부윤을 겸하도록 하여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는데 기묘사화로 인해 1519년 12월 다시 환원되었다. 이수건, 『지방제도사』(민음사), 189쪽.

37) 이수건, 『지방제도사』, 224~225쪽.

38) 최이돈, 「16세기 사림 중심의 지방정치 형성과 민」, 『역사와 현실』16(1995), 201쪽.

<표 1> 역대 경상도관찰사 및 지방관의 명단

관직	이름(字)	재직기간	都事(비고)	관직	이름(字)	재직기간	비고
觀察使	安珉(仲珍)	1545.1~1547.3	金珣, 鄭浚	觀察使	宋贊(治叔)	1565.5~1565.9	趙惟誠
	任虎臣(武伯)	1547.3~1548.3	金守雍		姜士尙(尙之)	1565.11~1566.11	張範
	鄭萬鍾(仁甫)	1548.3~1549.4	李宗奎		柳昌門	1566.11~1567.9	金逸駿
	沈通源(士容)	1549.4~1550.4	辛駟	星州牧使	南宮淑(淑夫)	1545~1547	
	趙士秀(季任)	1550.4~1551.6	鄭澄		李潤慶(仲吉)	1547~1548	
	李夢亮(應明)	1551.6~1552.7	辛崙, 陳耀		黃怡	1551	
	丁應斗(樞卿)	1552.8~1553.9	李希儉		羅士愷((1553	
	鄭彥愨(謹夫)	1553.9~1554.10	李銘, 韓汝哲		李元孫(子長)	1554	
	權黻(景由)	1554.10~1555.10	張文輔		李士弼(夢錫)	1554(8 월)	
	曹光遠(晦甫)	1555.10~1556.11	梁應臺		盧慶麟(仁甫)	1556~1560	
	俞絳(絳之)	1556.11~1557.9	孫軾		黃俊良(仲舉)	1560~1563	
	金光珍(子任)	1557.10~1558.2	梁喜		崔弘渡	1563(3 월)	
	吳謙(敬夫)	1558.2~1558.12	韓性源		金允梯	1564(5 월)	
	李戡(彥信)	1559.1~1560.2	金克一		安景祐	~1547	
	洪曇(太虛)	1560.2~1561.3	李義臣		金應祥	1547	
	南宮愷	1561.3~1562.3	趙希文		崔汝舟(巨川)	1551	
	鄭宗榮(仁吉)	1562.3~1563.3	朴居仁	朴胤宗	1555		
	沈守慶(希安)	1563.3~1563.8	金宇弘	金蘭宗	1556(3 월)		
	吳祥(祥之)	1563.9~1564.1	郭赴	徐克一	1556~1558		
	李友閔(孝叔)	1564.2~1565.2	(外祖 閔琛)	孟崇善	1558(5 월)		
李澤(澤之)	1565.2~1565.5						

이문건의 유배 당시 성주목사인 남궁숙과 관관 安景祐(大裕) 를 비롯하여 善山郡守 李申之, 淸道縣監 安太古, 大丘判官 黃世獻, 昌原府使 李文誠, 黃澗縣監 李堯年, 機長縣監 全珍, 玄風倅 郭之雲, 龍潭倅 金君舉 등과 다양한 人的關係를 동원하여 交遊통로를 마련하여갔다. 이후 교체되어온 鄭萬鍾, 李潤慶, 金應祥, 黃怡, 李夢亮, 崔汝舟, 李元孫, 李士弼, 盧慶麟, 金蘭宗, 宋緯 등의 성주 인근 지방관들과도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문건은 유배인으로서 그 생활을 지방관의 호혜에 의존하는 처지였으며,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牧使·判官 등 지방

관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아가 이들 지방관들은 유배인의 곤궁한 처지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 중심 인물들이었다.³⁹⁾ 이문건이 중앙의 당상관 출신으로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유배를 온만큼 그의 정치적인 복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를 대비한 사전의 친교를 원하는 사람들도 도한 적지 않았다. 그 한 예로써 1545년 11월 29일 휴가를 받아 下鄉한 注書 柳景深은 鄉里의 사족 등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 유배된 것이 아니니 박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그에 대한 인식이 그의 유배를 바라보는 당시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것이다.⁴⁰⁾ 現 地方官으로서 자신들의 장차의 官路와 무관하지 않은 각계각층의 人物들과 밀접한 人的 交遊網을 형성하고 ‘稱念’의 형태로 각종의 배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이문건을 결코 소홀히 대우할 수 없었다. 향촌사족들 역시 지방관과 동등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人脈·學脈으로 연결되어있는 이문건과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관은 물론 중앙관직자들과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자진하여 문안을 청하는 가하면 각종 향촌사회내의 문제를 이문건과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兩者와의 관계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이문건은 星州 鄉村社會의 주요 人士로서의 사회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방관청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在地勢力으로서 향리층은 지방관의 手下組織이었으나 향촌 사회의 관행을 견지하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상실하여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행정사역인으로서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⁴¹⁾ 16세기 전반까지는 향촌사회에서 士族과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⁴²⁾ 이문건은 유배 초기 上戶長 李敷榮과 副戶長인 李膺, 李友章, 李(允)成, 裴仁孫 등을 비롯하여 州·營吏 또는 貢生인 裴繡昌, 金應瑞, 裴士弼, 裴吉守, 呂環, 都厚男, 金億年, 金亨, 都希叙, 都漢 등과도 자주 왕래하였고 鄉吏·貢生 등에게 論語, 詩賦, 書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문건은 이들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동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39) 이성임, 「16세기 李文樞家의 收入과 經濟生活」, 『국사관논총』97 (2001).

40) 『日記』 권2, 1545년 12월 6일

41) 최종택, 「조선초 향촌지배세력의 역학구도」, 『국사관논총』92, 224쪽

42) 이수건, 「향촌지배세력의 교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1989), 100~109쪽, 정진영,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1990).

각종 실무에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반면에 鄉吏들은 이문건을 비롯한 鄉村土族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身役의 면제를 도모하였다.⁴³⁾

2. 성주 지역 사족의 형성과 교유관계

조선시대 지방의 재지사족들은 고려말 이래의 토착향리, 상경중사자, 재지사족, 이주사족 또는 邑內派, 京派, 鄉派 등으로 분화 발전하였으며 妻鄉과 外鄉을 따라 入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고려말 이래의 정치·사회·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군현제와 지방통치체제의 개편에 따른 임내의 직촌화, 토지의 광범위한 사적 지배, 불교 기반시설의 인수 등⁴⁴⁾ 활발한 지역개발로 향촌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정치·사회적인 세력을 신장해나갔다.⁴⁵⁾

한편, 사족들은 15세기 이래 훈구세력의 귀족화를 견제하고자 불교적인 생활양식을 척결하고 유교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강조하고 향촌사회의 운영방식으로서 사림에 의한 향론정치를 지향하였으며 향론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성종대 유향소와 사마소, 중종대의 향약·서원 등이 설치되면서⁴⁶⁾ 吏族主導의 향촌지배체제가 유향소와 사마소를 중심으로 한 사족 주도형으로 점차 대치되었고,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⁴⁷⁾

한편, 경재소는 州府郡縣의 土姓 출신자로서 在京從仕하는 자들 중에서 座首 1員, 叅上別監 2員, 叅下別監 2員의 임원을 충원하였고,⁴⁸⁾ 유향소의 座首·別監 등

43) 김소은, 「16세기 兩班 土族의 수입과 경제생활-목재일기를 중심으로」, 『崇實史學』15(2002).

44) 양반사족들의 사원시설 인수의 예를 보자면, 이현보는 구사를 개축하는 등으로 자신의 堂과 亭, 精舍를 삼고 사원 소유의 전답과 노비를 영점하였으며, 주변 농민의 소유지를 債務·寄贈·兼併의 수단을 동원하여 토지를 집적하였다. 한편, 이언적 사후인 1572년 건립된 玉山書院은 인근 淨惠寺와 斗德庵이 定屬되었고 건축 역시 인근 廢寺의 자재를 활용하였다. 이후 寺位田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紙地와 醬類, 山菜 등 생활 물자 전반을 사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5)』; 이수환 「玉山書院의 歷史와 그 所藏資料」, 『玉山書院誌』(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45) 이수건, 「향촌지배세력의 교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이수건, 『지방제도사』, 328쪽.

46) 최이돈, 「16세기 사림 중심의 지방정치 형성과 민」, 199-200쪽.

47) 이태진, 「사림세력의 활동-향촌질서의 재편운동」, 265쪽.

48) 『世宗實錄』 권 69, 17년 9월 己巳條

을 임명하며, 鄕吏糾察· 鄕中人物의 薦舉· 鄕風教化· 貢賦과 進上의 收納· 貢物防納 등 광범한 분야에 관계함으로써 京邸吏와 지방의 유향소를 통하여 해당 邑을 통할하였다.⁴⁹⁾ 재경관인들은 재산 상속 등으로 획득한 父邊· 母邊· 妻邊· 祖妣邊· 曾祖妣邊· 外祖妣邊의 토지와 노비가 연고지에 산재하였으므로⁵⁰⁾ 守습에게 연고지의 소유 재산의 完護를 稱念(부탁)할 수 있었으며, 경재소는 바로 이들의 지방에 대한 연고권을 보장해주는 방편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⁵¹⁾

이러한 양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훈구과 관료들은 京在所를 통하여 留鄕所의 在地品官을 장악하고 나아가 연고지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고자 官주도의 운영을 주장하였으나⁵²⁾ 중종대 이래로는 사람과의 정계 등장과 함께 재지품관의 자치적 성향이 강해지게 되었다.⁵³⁾ 중종조의 재지사람들의 사람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유교적 윤리관의 보급 즉, 교화방식으로 자치적 향촌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⁵⁴⁾ 鄕約· 鄕飲酒禮· 鄕射禮 등을 보급하고 鄕會가 재지사람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지게 되었다.⁵⁵⁾

특히 경상도의 경우 각 邑마다 土姓品官· 留鄕品官이 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王朝交替期와 士禍 당시에 落鄕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지방관청의「貳衙」로서 활동하였고 高官을 역임하거나 學德을 갖춘 人士를 임원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유향소의 활동은 매우 원활하였다. 한편, 成宗 19년에 유향소가 復立된 후 유향소 임원들이 官權과 결탁하여 점차 보수화되자 在地士林들은 점차 司馬所를 조직하게 되었다. 15세기 말에는 士林派의 세력 성장과 함께 新進 少壯層이 老壯層 위주의 유향소와 대립하는 기구로서 生員· 進士試 출신이 중심이 된 司馬所를 설치 운영하였

49) 李樹健, 앞의 책, 318쪽.

50) 李樹健, 『朝鮮時代地方行政史』, 319 쪽

51) 이수건, 『지방제도사』, 312쪽, 『成宗實錄』 권 91, 9년 4월 己亥條

52) 朴翼煥, 「麗末鮮初 留鄕所의 지방자치적 기능과 성격변화」, 『國史館論叢』 55(1994), 252 쪽

53) 李樹健, 앞의 책, 332쪽. 「鄕憲」에 府以上에는 座首· 別監 5員, 郡에는 4員, 縣에는 3員으로 되어 있었고 權五福의 醴泉郡 鄕射堂記에는 府 4員, 郡 3員, 縣 2員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종13년 유향소 복립문제를 의논할 때 吏曹는 府 이상 4원, 郡 이하 3원으로 되어 있는데 『成宗實錄』 卷 138, 成宗 13年 2月 辛丑) 이 정원이 조선후기까지 적용되어 온 것 같다.

54) 이태진, 「사람세력의 활동-향촌질서의 재편운동」, 277쪽.

55) 李成茂, 「朝鮮時代 鄕村支配勢力의 推移」(第 6回 國際學術大會論文集, 『韓國學의 世界化』 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430쪽.

다.56) 司馬所는 一邑의 鄉權을 장악하고 鄉論을 左右하며 守令의 毀譽도 그들의 손아귀에 넣을 정도로 지방사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57)

星州지역은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土姓이 7이고, 來姓이 1이었으며, 土姓은 土族과 吏族 모두 族勢가 강하였다. 이문건 당시 성주에는 星州都氏·星州裴氏·星州呂氏·星州李氏 등의 土姓을 비롯한 義城金氏·冶爐宋氏·順川朴氏·廣州李氏·東萊鄭氏·安東權氏·八莒呂氏 등의 世族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58) 퇴직 관료, 생원·진사, 유향소 좌수·별감 등의 품관 기타 유생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59) 특히 기묘사화를 전후한 중종대 훈구파의 집권 하에서 15세기 사림파가 성장하여 영남지방의 재지사족을 형성하였다.60)

일찍이 이문건은 시묘생활과 사환시기를 통해 尙州와 星州 京在所에 참여하였고, 경제소의 임원으로서 星州의 京主人이 왕래하였으며 유향소 임원의 선발에 관여하기도 하였고 해당지역 수령에게 청탁하는 서신을 써주는 등으로 성주지역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61)

성주 유배 직후, 이문건은 土姓土族으로서 공동체적 결속을 유지하고 있는 星州李氏들과 유대를 형성하면서 門中 행사인 안봉사의62) 影堂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族譜를 모아 새로운 족보를 작성하여 謄寫하고,63) 家訓類들도 정리하

56) 『燕山君日記』권31, 4년 8월 癸酉

57) 『明宗實錄』권26, 15년 2월 癸卯

58) 星州文化院, 『譯註 京山志』, 2000. 11.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일조각, 1995). 3쪽, 金武鎭, 「朝鮮前期 星州鄉村社會의 構造와 支配層 動向」, 『韓國學論叢』18(1991).

59) 최이돈, 「16세기 사림 중심의 지방정치 형성과 민」, 201 쪽

60) 이수건, 「사림세력의 성장 기반」, 142쪽.

61) 『日記』권2, 1545년 1월 19일, 1545년 1월 11일; 4월 15일.

62) 安峯寺는 성주 서북방 20리거리에 위치하는 사찰로서, 星州李氏의 影堂·守護寺의 성격을 가진다. 15세기 이래 국가로부터 공인된 사찰 이외의 대부분은 鄉校, 驛, 鄉廳등 地方官府의 시설로 전용되거나, 재지세력의 願堂, 齋舍, 精舍 및 書堂, 書院 등 유학교육시설로 대체되었으며 또한 향촌세력의 屬寺로 존재하면서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慶州 玉山書院과 定慧寺, 대전 안동권씨 유희당 등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수건, 「書院의 歷史와 그 所藏資料」, 46-52쪽.

63) 현재 성주이씨 문중에 전하여지는 ‘嘉靖譜’는 성주관관으로부터 종이를 얻어, 선조의 진영을 직접 그려넣고, 시조로부터 부계중심의 族圖 형식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日記』권2, 1545년 10월 20일, 10월 24일, 10월 26일; 46년 1월 1일; 권3, 1547년 1월 8일

였다. 유배기를 통하여 이문건과 교류를 가졌던 同姓 人物은 다음과 같다

- 李長庚 後孫: 李春長·李瑄(鼎谷居),
- 李仁任 後孫: 李舟·李彭壽父子(伽利縣거주),
- 李萬年 後孫: 李格·李胤·李鶴·李鵬·李瑜
- 李崇仁 後孫: 李夢辰·李得筌·得中(妻男朴之萱)父子
- 草田洞 거주: 李士謙(益夫)·李勳卿·翼卿 父子, 李德潤·李德混·李德渾
- 新(神)堂 거주: 李應辰, 李堅基·李伋(思卿) 父子, 李浩然(剛仲), 李泰然(靜仲), 李自然(誠仲) 형제

<표 2> 성주지역의 주요 인물

이름	생몰년	字, 號	참고사항
權希孟	(1472~1525)	士醇	
權應挺	(1498~1564)	士遇	을사사화로 맹산에 유배, 안동부사. 子: 權容
權應昌	(1505~1568)	景遇	을사사화로 맹산에 유배, 1557 전라감사 子: 權審, 權寔
權應仁	(1517~)	士元, 松溪	글씨와 문장이 탁월함. 권응정의 庶兄
呂希臨	(1481~1553)	大之	子: 呂沈·呂允忠
呂 岩		爾瞻, 踏雪	雲谷거주
朴潤卿	(1479~1527)	君擇	
都 衡	(1480~1547)	國銓	都熙胤
都 鈞		仕銓	都鉉輔
宋希奎	(1494~1558)	天章, 仰溪	宋鉉·惟敬·光廷
金希參	(1507~1560)	師魯, 七峰	송희규와 강학
金宇弘	(1522~1590)	勉夫	밀양부사. 子: 行可
金宇宏	(1524~1590)	敬夫	子: 得可
金宇顛	(1540~1603)	肅夫, 同岡	
李景明	(1517~)	如晦	동래부사
李弘器	(1531~1582)	伯容	李樹의 아들, 李佑의 외손, 鄭述의 처남
李弘量		仲容	
李弘宇		季容	
李 佑		賢仲	-- 李彥明 李熙明 李景明
裴德文			白巨鯨의 사위
柳景深			裴寬의 사위
吳 健		子強, 德溪	李光의 사위

이외에도 李友膺, 李終年·成年父子, 李叔同, 李定國, 李彭祖, 李希寬, 李壽杞, 李克茂와 庶子인 溫, 恭, 儉 등과 빈번히 왕래하였는데, 이들 星州李氏들은 이문건의 유배와 함께 새로운 결속과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문건은 성주 인근에 분포하는 많은 鄕村 土族들과도 교류 관계를 맺으면서 향촌사회의 일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나갔다. 성주 인근의 주요 향촌사족으로서 이문건과 밀접하게 왕래한 주요인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향촌 사족들은 品官 혹은 留鄕所·司馬所의 임원 혹은 그 친족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으며, 『목재일기』에 나타나는 성주지역 유향소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545년 留鄕 座首, 韓世麟, 別監 李謙亨

1546년 座首: 李明遠, 別監: 宋慶廷, 李彭年

1548년 座首: 韓國瑞

1551년 座首: 姜德元, 別監: 宋應奎, 李榮光, 裴振綱

1552년 座首: 洪述之, 別監 鄭希年, 李禹年, 사창별감 宋世臣

1553년 座首: 呂林鍾, 별감: 柳應壁, 韓璣

1554년 별감: 朴汝舟, 12월 李格

1555년 別監: 羅輝允

1556년 別監: 韓璣, 3월-座首: 李子雲, 朴光後

1557년 座首: 李堯年, 別監 權應鈞, 李希雲

1558년 3월-座首: 趙光輔, 12월-座首: 李忠基, 別監 李得筌, 鄭恒金文年

1561년 別監 呂周南

1562년 座首: 李希雲, 別監: 李瑜(李敏楫, 李德渾 등이 향소가 되기를 원함)

1565년 별감: 韓琛

『日記』를 통해서 본 유향소의 업무는 僧侶의 役·僧軍의 抄定,⁶⁴⁾ 軍役 徵發·軍籍⁶⁵⁾, 勞動力의 동원,⁶⁶⁾ 향리의 차정,⁶⁷⁾ 還上·租稅·貢物 등의 徵收와 防納업

64) 『日記』1552년 1월 7일, 1553년 6월 5일, 1553년 12월 14일, 1554년 1월 8일, 1555년 7월 12일, 1556년 12월 23일, 1557년 12월 25일, 1563년 7월 12일

65) 『日記』1553년 2월 10일, 1553년 3월 9일, 1553년 3월 16일, 1553년 3월 29일, 1553년 8월 8

무, 68) 風俗의 矯正⁶⁹⁾ 등의 업무를 정당한 行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留鄉所 임원들은 성주 목사가 設酌한 경우나 향교에서 判官과 함께 開酌을 하는 경우에 참여하였으며⁷⁰⁾ 전직 牧使의 善政碑를 건립하고⁷¹⁾ 移任하는 목사의 餞別 행사 등을 사마소와 유향소가 함께 마련하였다.⁷²⁾ 또한 향사례 등에는 사마소, 유향소, 전현직 관료들이 모두 모임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 전반적인 성향이 협조적인 관계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⁷³⁾

다양한 계층과 구조를 가진 재지사족들의 교유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향촌 사족들은 留鄉所·司馬所·鄉校의 鄉任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鄉村士族과의 訪問, 會合, 遊覽, 遊戯·娛樂 등은 지역사회와 결속을 다진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⁷⁴⁾ 이문건은 향촌 사족들과 관청이 주관하는 모임과 私家의 연회 및 賞春會 등에 자주 동석하여 사족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留鄉所·司馬所의 임원을 천거하고 운영방안을 의논하였으며 鄉試의 시행과정에 관여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성주지역의 경우 재지사회의 권력관계는 지방관과 유향소·사마소가 상호 협조적이거나 유착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생원·진

일, 1553년 4월 5일, 1554년 1월 28일, 1554년 5월 23일, 1555년 7월 25일, 1555년 8월 7일

66) 『日記』1551년 1월 26일, 1551년 2월 5일, 1554년 10월 14일, 1554년 10월 28일, 1558년 2월 17일

67) 『日記』1556년 9월 27일, 1556년 12월 12일, 1546년 12월 6일, 1547년 1월 1일, 1546년 10월 1일, 1547년 1월 13일, 1553년 10월 21일, 1554년 10월 7일, 1556년 8월 28일, 1562년 9월 23일

68) 『日記』1559년 9월 24일, 1551년 3월 4일, 1551년 11월 21일, 1552년 7월 24일, 1552년 10월 19일, 1552년 10월 22일, 1554년 10월 14일, 1555년 10월 10일, 1556년 1월 20일, 1556년 10월 28일, 1557년 11월 24일, 1558년 11월 16일, 1561년 10월 8일, 1562년 3월 10일, 1563년 10월 24일

69) 『日記』1552년 3월 5일, 1553년 윤3월 10일, 1553년 윤3월 18일, 19일, 1554년 8월 22일, 1555년 1월 18일, 1555년 12월 9일, 1556년 11월 22일, 1558년 3월 17일, 18일, 1558년 4월 11일, 1558년 12월 3일, 1561년 윤5월 11일, 1561년 8월 12일, 1561년 10월 3일

70) 『日記』권2, 1551년 3월 3일

71) 『日記』권3, 1547년 1월 3일

72) 『日記』권2, 1551년 5월 12일, 11월 10일.

73) 『日記』권3, 1546년 6월 1일, 1552년 2월 21일.

74) 김현영, 「조선시대 사족지배체계의 새로운 전망」 『慶尙道 星州지방을 소재로 하여』, 1999.

사들은 사마소, 품관층은 유향소를 구성하여 담당 업무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의 출신이나 성씨가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한편, 鄉射禮· 鄉飲酒禮 등의 集會에서 지방관인 목사· 관관· 교수들과 재지사족들의 관계는 협조와 갈등의 관계가 반복되었다. 이문건은 이러한 지방관과 재지 세력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조절하였고, 이를 통하여 유배지 생활의 편의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편이 되었다.

이문건의 교유 활동의 형태를 보면 학문적이며 예술적인 자질이 중요한 기능을 발하였는데, 음악과 글씨, 미술 등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이문건은 유배지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구하여 보는가 하면,75)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는데, 해마다 歲畫를 그려서 인근 친지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직접 제작한 족도에 이조년 등 조상의 초상화를 그렸고 또한 자신과 아들의 초상화도 직접 그렸으며76) 狩獵圖를 색칠하는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적 재능도 인근에서는 특출한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月琴· 短琴· 大琴· 伽倻琴 등을 소장하고 연주하였으며,77) 특히 거문고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연주는 물론 제작· 補修· 修理 등에도 능숙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주와 제작을 의뢰를 받기도 하였다.78)

한편, 재지 사족의 자제들의 과거 준비를 부탁받는 등으로 향촌사회의 士族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였는데, 星州 判官 安景祐의 아들인 安宏을 지도한 것에서 비롯되어, 지역 유생인 宋希仁, 鄭允福 등에게 通鑑과 詩賦등을 가르쳤다. 1556년에는 李士碩· 柳淵 등에게 通鑑을, 관관의 아들인 朴庭訓에게는 詩傳을 가르쳤으며 유배기간을 통하여 목사와 관관 자제들의 科擧 준비를 위해 詩· 賦를 지도하였다. 또한 관청의 요청으로 鄉試의 詩· 賦를 검토해주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인근 유생들도 학습을 청하거나 자문을 구하였다. 당시 성주 지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배

75) 『日記』 권3, 1546년 8월 17일; 권7, 1555년 10월 30일

76) 『日記』 권6, 1554년 2월 17일; 권7, 1556년 1월 8일 1월 9일 4월 22일; 7월 16일 9월 4일.

77) 『日記』 권4, 1548년 3월 2일; 3월 4일; 3월 9일

78) 『日記』 권4, 1548년 3월 15일; 4월 8일-9일; 5월 21일; 권5, 1551년 7월 10월; 8월 21일; 10월 1일; 10월 13일 10월 15일; 1552년 4월 14일-15일

<표 3> 『默休唱酬』에 참여한 인물(79)

번호	姓名	生沒年	字號	次韻時期	관직(지위)
1	李文樾	1494-1567	子發/默齋休叟	嘉靖甲寅季夏初	
2	李 晃	1501-1570	景浩/退溪	嘉靖丁巳元日	副堤學
3	黃汝獻	1486-?	獻之/柳村	甲寅端陽下院	蔚山府使
4	宋 純	1493-1588	守初士-/企村	甲寅季夏	善山府使
5	李元孫	1498-1554	子長/無何翁	"	星州牧師
6	宋希奎	1494-1588	天章/仰溪	甲寅冬	
7	尹 奎		文老/仰溪漁老	"	進士
8	趙 昱	1498-1577	景陽/葆真菴居士-愚菴		長水縣監
9	盧 禎	1581-1578	子膺/河西後人	乙卯首夏上潮	
10	趙 植	1501-1572	樾中/南冥 雷龍舍主	甲寅孟秋	
11	李希顏	1505-1559	愚翁/事神齋(黃江)	甲寅陽月	高靈縣監/安逸
12	李 焰		景晦		
13	權應挺	1498-1564	士遇/喜還堂-杏灘 默巖居士	丙辰清和上浣	
14	盧慶麟	1516-1568	仁父(四印堂)	丙辰夏	성주목사
15	丁 煥	1512-1560	季晦/遊軒	甲寅季冬念一日	거제 유매중
16	呂 巖		雲叟/靜軒蒙養子		
17	金字弘	1540-1603	勉夫/仰溪後學 伊溪		
18	洪繼玄		述之/臺巖拙翁	嘉靖丙辰秋	孝子
19	權應仁	1501-?	(士元)/松谿	嘉靖甲寅初	庶子
20	柳應璧		希祥	丙辰中秋初六日	
21	金振宗		孝善/門巖過客 文巖	丙辰仲冬	
22	金孝甲				
23	柳景深	1516-1571	太浩/龜村		
24	李 珥	1536-1584	(叔獻)/栗谷		
25	黃俊良	1517-1563	仲與/錦溪	庚申秋季	성주목사
26	李世純		景粹	丙辰陽月初10日	
27	李元孫	1498-1554	子長/無何翁	甲寅暮春晦前一日	성주목사
28	李元孫	1498-1554	子長/無何翁	甲寅中夏下旬	성주목사
29	曹 禧		仲慶		성주목사
30	李元孫	1498-1554	子長/無何翁	甲寅中夏下旬	성주목사
31	權應挺	1498-1564	士遇/喜還堂-杏灘 默巖居士	丙辰清和上浣	
32	權應昌	1500-1568	景遇/足巖		
33	黃汝獻	1486-?	獻之/柳村	乙酉閏至月欲晦	蔚山府使
34	吳 謙	1496-1582	敬夫/栗亭		
35	許伯琦	1493-?	汝珍/三松堂(浩齋)		
36	吳 謙	1496-1582	敬夫/栗亭		
37	成守琛	1493-1564	仲玉/聽松 竹雨堂		
38	申 潛	1491-1554	(元亮)/靈川子(峨嵋山人)		
39	黃汝獻	1486-?	獻之/柳村		蔚山府使
40	金忠甲			己酉2月11日	
41	金孝甲				

출되었으나, 문과 급제 이후 청요직을 역임한 그의 학문적 능력은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문건의 교유관계에서의 학문적 성향은 친지들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回甲을 맞이하여 제작한『默休唱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문건은 1554년 回甲에 7인 율시인 默齋·休叟 두 시를 지어서 인근의 士族들에게 次韻을 받았는데, 이를 모아 제작한 것으로 참여한 인물들은 아래 표와 같다.

이문건은 이들로부터 화답시를 받아들이고 매우 기뻐하면서 직접 첩에 정리하였는데, 『默休唱酬』는 李滉의 「默齋休叟說」1편과 默齋와 休叟를 차운한 54수의 7언 또는 5언 율시, 그리고 목재의 다른 운에 차운한 11수 등 총 65수의 시와 1편의 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33인의 작품이 실려있다

유배인 이문건은 지방관 및 官屬, 그리고 재지사족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인물들과 교유하면서 20여년의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히려 在地士族에 못지않은 성주지역 향촌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주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향촌의 의견을 조정하는 유력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V. 영봉서원의 건립 계획

1. 서원 건립의 배경

이상에서 살펴본 이문건의 성장과정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인적 交遊網은 오랜 유배생활로 인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장으로 연결지어지지 못하였으나, 성주지역사회를 발판으로 하는 향촌사족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서 迎鳳書院의 건립계획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재지사족들은 同姓村을 형성하고 留鄉所·司馬所와 같은 기구를 운영하면서 鄉射禮·鄉飲酒禮 등의 향례를 시행하면서 결속을 공고히 하였으며, 鄉案 등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적 결속 하에서 재지사족들은 한편으로는 書齋·精舍·書堂 등의 사립 교육기구를 마련하고⁸⁰⁾ 학연·지연·혈연적 유

79) 문희순, 「이문건의 목휴창수와 수창사의 특성」, 『한국언어문학』 48(2002), 31-70 쪽 참조

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 이로써 향촌사회에서의 재지 사족층의 위상은 강화되어 갔으며 도학적 성리학의 진전과 함께 각지에서 사림세력에 의해 書院의 설립이 증가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⁸¹⁾

이에 반하여 사찰 및 願刹의 위상은 격하되었고 따라서 이문건은 성주이씨의 안봉사 영당을 대체할 새로운 組織體로서 서원의 건립을 희망하였다. 성주의 토성인 성주이씨는 이장경을 중시조로하여 선조 12위의 영정을 선석산 이장경 묘소 옆의 선석사에 모시고 있었으나 이장경의 묘소가 왕실의 태묘지로 간택되어 梧岨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이후 영정은 안봉사로 옮기고 매년 2월에 影堂祭를 거행하였다.⁸²⁾

星州 鄉吏인 李長庚은 百·千·萬·億·兆年 5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이 성주이씨의 중심 宗派를 이루었다. 성주이씨는 러말선초의 변동기 와중에서 재경관료로서 사환하는가하면 여전히 성주의 향리로서 활동하는 세력까지 一族내에 다양한 분화를 경험하였다. 이문건은 이장경·이조년·이보·이인만·이직·이사후로 이어지는 가계의 일원으로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세력이었다. 한편으로는 정계에서 은퇴하거나 유배를 당하는 경우 고향인 성주로 돌아오는 등으로 성주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문건이 유배되던 당시 이미 성주지역에서는 매년 2월에 影堂祭를 연례적으로 거행하고 있었으며, 이에는 성주이씨 외에도 내외손들과 지방관과 품관들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一鄉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더욱이 이문건 유배 후에는 지방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각종의 祭需物資를 제공받으면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오랜 가문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문건을 중심으로 한 성주이씨는 불교시설에서 거행되는 이러한 의례를 탈피하여 유교적인 의례로서 전환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따라서 향촌사족 특

80) 성주의 경우도 사족층이 점차로 형성되면서 각종 사립교육기관들이 건립되었는데, 1553년에는 屯田에 赤山書堂을 건립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日記』 권6, 1553년 7월 27일)

81) 金武鎭, 「朝鮮時代 星州의 教育體制」, 『韓國學論叢』 24(1997), 102 쪽

82) 안봉사는 중시조인 李장경을 비롯한 선조 14위의 영정이 모셔져 있으며 점차로 18位로 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망실하여 6위는 위패로 대신하게 되었고, 1868년 3위를 추배하였다. 1858년 서원 철폐령으로 영정각이 훼손되자 6위의 위패와 3위의 위패는 매안하고 12위의 영정은 별사에 봉안하였다가 1879년 후손들이 다시 영각을 건립하였다. 『默齋集』

히 동성사족과의 교유 관계를 기반으로 서원 건립이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을 도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서원건립에 필요한 향촌자체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先祖祭享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성주이씨의 先祖를 鄉賢으로 지목하게 되었으며, 이에 이문건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로써 이문건을 비롯한 星州李氏들은 기존의 불교 사찰을 門中の 影堂으로 사용하는 단계로부터 儒敎的 敎育기관인 書院을 건립하여 先祖를 享祀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문건의 희망은 盧慶麟의 善政을 위한 노력과 결합되면서 白雲洞書院의 예를 모범으로 하는 書院을 성주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귀일되었다. 이문건은 1555년 盧慶麟이 성주목사로 부임하자 젊은 士人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이에 영주의 白雲洞書院의 활약에 고무된 바가 컸다. 백운동서원은 주세붕이 風氣의 敎化를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安珦을 존봉하는 사묘를 갖추고 있었는데, 건립 이후 이곳에서 학업을 도야한 많은 젊은 유학자들이 문과 급제를 통하여 명소로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경린은 백운동서원과 같은 書齋를 갖추고 더불어 鄉賢의 향사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이문건의 역할에 힘입어 성주이씨의 先祖인 文烈公 李兆年, 文忠公 李仁復 등을 鄉賢으로서 지목하게 되었다.

당시 영봉서원은 성주목사인 노경린(1516~1568)이 1555년 부임하여 1558년 창건한 서원이다. 노경린은 사위인 李珮를 목사 관아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성주 읍내의 지방관과 사족들의 모임장소인 南亭에서 이문건은 이이와 從孫인 李天澤의 학문을 겨루도록 하기도 하였다. 당시 성주 지역의 유생들은 海印寺·龍淵寺·龍起寺·安鳳寺 등의 인근 사찰을 찾아 독서와 科擧준비를 하였으며, 이는 유학을 수업하는 선비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인근 사족 자체들의 詩·賦 등의 科業을 지도하였던 이문건도 同姓 유생들은 물론 지역 新進儒生들의 이러한 독서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⁸³⁾ 목사 노경린 역시도 사위인 이이가 과거 준비 중이었고 이이와 함께하는 지역 유생들을 지켜보면서 이들 젊은 선비들의 학업을 위한 장소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주지역에 서원

83) 『日記』 권6, 1554년 6월 16일; 권7, 1556년 5월 16일; 권8 1559년 1월 16일.

을 건립하여 유생들의 藏守處와 講學所를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鄉村의 先賢을 제향하도록 함으로써 후세의 귀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건립을 계획하였다.

2. 서원 건립 계획의 무산

조선시대의 서원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先賢, 先師를 奉祀하는 祠宇와 자체를 교육하는 齋가 결합된 것이나, 설립 초기에는 사묘와 서원은 별개로 간주되었다. 사묘는 교화를 위한 존현처이며, 서원은 단순한 유생의 독서처로서 교육기관의 기능은 사묘에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종 38년 周世鵬에 의해 건립된 白雲洞書院 역시 教化를 목적으로 지역출신인 安珦을 존봉하는 祠廟를 마련하고 그 부속 기관으로서 儒生藏修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 退溪에 의하여 서원은 사림의 講學·수장처로서 성격을 확립해감에 따라 사림세력들의 향촌 활동의 중요한 기구로서 급격히 확산되었는데, 사림세력의 유교적 향촌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⁸⁴⁾

서원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목사 노경린은 이미 安東에서 書堂을 마련하고 道學을 교육하면서 사상의 중심으로서 자리하게 된 退溪 李滉에게 書院의 건립 계획과 文烈公 李兆年, 文忠公 李仁復을 향사하는 내용 등을 알렸다. 이에 퇴계는 道德의 근본은 忠節이므로 이조년 등의 忠節을 들어 文烈公과 樵隱公을 제향하여 사림의 공식으로 삼음이 가하다고 답하여왔다.⁸⁵⁾

그리하여 서원의 건립과정에는 성주이씨의 영당이 마련되어 있는 안봉사의 僧軍이 調發되어 그 역을 담당하는 등으로⁸⁶⁾ 이문건을 중심으로 한 성주이씨의 역할이 적지 않았으며,⁸⁷⁾ 이문건은 서원근처에 자신의 서재와 가옥을 마련하려고까지 생각하면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讀書次 안봉사 영정각에 다

84) 이수환, 「서원건립 활동」,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280~286 쪽 303 쪽

85) 퇴계는 朱子의 學的系統性을 확보하고 性理學의 力踐에 경주하였으나, 반면에 전통적인 思考方式이나 生活樣式에 대하여도 배려하고 존중하였다. 박현순, 「16세기 士大夫家의 親族秩序- 李滉집안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07(1999); 정만조, 「퇴계이황의 서원론」,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384쪽.

86) 『日記』권 8, 1558년 8월 29일

87) 『日記』권 8, 1558년 8월 3일

녀온 노경린의 사위인 이이 등 신진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조년의 영정에 염주가 그려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好佛한 인물을 후학들의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는⁸⁸⁾ 성주지역 내에서의 이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 문인 黃俊良 역시 영봉서원의 영정과 서원 안에 이조년 사묘를 세우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조년의 화상에 염주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한때의 습속일 뿐이나 다만 유생의 공식을 위해서는 이조년 사묘를 서원 옆에 두는 것이 적당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⁸⁹⁾

이후 인근 지역 유생들까지 이조년의 화상에 염주를 들고 있으므로 불상에 감염된 자를 입향할 수 없다는 반대가 일게 되었다. 이에 처항인 성주에 자주 출입 하였던 金宏弼 3인을 享祀하려는 내용을 알리고 서원의 記文을 요청하자 퇴계는 김굉필을 入享한 것을 기뻐하면서 충절과 도덕을 들어 3인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원기를 지었다.⁹⁰⁾ 이 때에 迎鳳書院記의 글씨는 이문건에게 쓰도록 부탁하라는 당부까지 보내었다.

迎鳳書院記를 통하여 퇴계는 유생의 강도처인 서원에 사묘가 필요한 이유를 崇道作人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서원이 처음 건립되고 아직 제향인물과 위치를 정하지 않았던 1560년 7월 하순에 지은 것으로 서원에 대한 퇴계의 견해와 성주의 이조년 이인복 김굉필 3인의 학덕을 찬양하였다.⁹¹⁾ 서원건립을 주도한 성주목사 노경린에게, 퇴계는 이래 여러 차례 致書하여 제향인물과 위치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한편으로는 또 3인의 위치 문제 즉 연대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학위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 되었다. 반면 노경린과 성주이씨들은 연대 위주의 3인 배향을 고집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송사로 이어져서 영남 일

88) 『日記』 1559년 2월 10일.

89) 文烈畫像手執數珠 此乃一時習尙爲然 雖賢者 未能免俗之故 然今置之學傍 實非所以示後學矜式之道也(퇴계전서 권 12, 答盧仁甫書, 庚申 제1서)

90) 퇴계전서 42, 序·記, 迎鳳書院記. 況於此邦三賢 忠義之實 道德之光 無異於親炙者乎 夫忠義道德本非二致 而道德爲之本焉(李元禎『京山志』, 學校條)

정만조, 「조선 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8』, 51쪽.

91) 퇴계전서 권42 迎鳳書院記

我는東書院 亦昉於今日 皆所以廣教敦化原也 而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爲備也.

대 사람이 화연하였다.⁹²⁾ 퇴계 역시 3인의 동사동향에 의문을 제기하여 도학자와 충절인을 서원에 같이 제향하는 데에는 물의가 있으므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충절인은 鄉賢祠에 제향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영봉서원기에 보인 충절과 도덕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므로 3인을 합향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수정되고 제향인물 기준에 있어 도학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⁹³⁾

그러나 성주목사가 다시 편지하여 중국서원 제향자의 예를 들어 3인의 併祀가 불가하지 않으며, 특히 衢州 景行堂의 제향사례에서 도학자가 비도학자와 함께 병사되고 있음을 지적하자 서원이 오로지 사람의 도학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자가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⁹⁴⁾ 黃俊良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제향인물과 위치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달리 조선서원의 특징이 반드시 도학자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⁹⁵⁾ 한편 이러한 제향인물의 선택과 위치 문제로 대단히 심려하였던 이문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는 김굉필이 반드시 道統의 嫡傳인가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⁹⁶⁾ 그리하여 최후로 영봉서원의 위치에 대해 김굉필을 上座에두고 兩李를 다음으로 하되 모두 남향으로하고 김굉필과 이조년의 位坐에 병풍으로 막아 각기 따로 존봉케하여 피차 강압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⁹⁷⁾

그러나 퇴계의 해결 방안 역시 논의를 잠재우지는 못하여 쟁송으로 발전하였고

92) 정만조, 「퇴계이황의 서원론」,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384 쪽

93) 퇴계전서 권 12, 答盧仁甫書 庚申 ㉔ 서 金先生道學淵源 固非後學所敢測者 然以先朝追獎之意推之 斷然以爲近世道學之宗也 其親二李公 各取一節 以爲鄉賢之可祭者 其德業風聲 既有不同 而所以尊崇之旨 亦不能不殊歸矣 如是而同祀同享 恐未免尙論之議其後也

94) 퇴계전서 권 12, 答盧仁甫書 庚申 ㉔ 서 道學而竝祀於他人 古亦有之 然亦如此事 微有不同者 彼則但爲祀賢 而此則有書院故也 大抵學校之設 誰非爲道學耶 而在書院 則爲道學之意尤專 其祀賢也以道學爲主可也 如不得其人則已 幸而得其人 及泛然不爲表異 則無以見崇重道學之意

95) 夫以中朝書院言之 亦非一概 或只祠先聖先師 或祠其地之先賢 或無廟祠 就其所祠 又或非盡道學之人 如盧君所學者 然則以文烈公忠節 雖祠於院 似若無不可不者 但書院本爲明道學而設 人非道學而廟祠未安(퇴계전서 권20, 答黃俊良書 庚申)

96) 퇴계전서 12, 답이자말書, 其大意 爲寒暄之於道學 果如思孟而程朱 則不拘世代之說甚當顧先生德行雖尊 若未及論著 後世無從考述以見道統之傳 徒以近世推崇之故 遽定此位 則先生之盛德謙虛 必不安處

『日記』10, 1563년 2월 17일; 2월 24일.

97) 既不失尊崇道學之意 而又可以申寒暄推讓前賢之志 遂兩李勿享非宜之義 其於祭官行禮 謁員致敬 竝無有碍理難行之事 無奈可乎(퇴계전서 권 20, 與黃仲學書)

서원 건립을 발의한 성주목사는 물론 퇴계까지도 시비의 대상에 말려들게 되었다. 퇴계는 영봉서원 건립이 시작되었던 1558년 당시에는 분명히 서원의 講道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또한 서원보다 사묘를 중시하였던 주세붕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가 같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⁹⁸⁾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존현과 이를 위한 제향의 비중도 크므로 서원 건립의 동기 또한 祀賢에 두게 되었다.⁹⁹⁾ 그리하여 서원의 사현이 현실적으로 중시되었으므로 제향인물의 선택이 당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고 이황의 享祀에 대한 견해도 점차 道學爲主로 변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이문건 역시 이황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태를 무마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람간의 시비와 분쟁이 적지 않았다.

1560년 黃俊良이 성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역시 퇴계와의 서신 교환을 통하여 이 문제를 다시금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¹⁰⁰⁾ 이 때에 퇴계는 도학자가 아닌 인물을 서원에 제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 견해를 정하였다. 결국 文敬公 金宏弼을 獨享하도록 하였고, 이후 鄭述가 臥龍의 고사를 인용하여 李滉에게 품의하여 程子和 朱子를 추가 봉안하였다. 이후 鄭述가 臥龍의 고사를 인용하여 李滉에게 품의하여 程子和 朱子를 추가 봉안하였으며, 그 소거지인 伊川과 雲谷의 이름을 따서 서원의 이름을 川谷書院으로 바꾸게 되었다.¹⁰¹⁾

결국 書院 옆에 祠宇를 세워 文烈公과 樵隱公의 位版을 마련하여 李氏子孫이 春秋祭를 지내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되면서¹⁰²⁾ 성주이씨를 중심으로 한 서원 건립 계획은 무산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원의 享祀에 대한 논의와 서원에서 성주이씨 세력이 배제되는 일련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이문건은 道學만을 숭상하고 鄉賢에게 박한 세대를 탄식하면서 무척 서운해 하였다.¹⁰³⁾ 이후 李兆年, 李仁復은 李崇仁과 함께 서원 옆의 忠賢祠에 모시게 되었으며, 安奉影堂은 1581년에 이염의

98) 퇴계전서 12권, 庚申, 答盧仁甫書

99) 정만조, 「퇴계이황의 서원론」, 384 쪽

100) 『퇴계전서』 12권, 答盧仁甫書; 권20 答黃仲學書

101) 金武鎭, 「朝鮮時代 星州의 教育體制」, 『韓國學論叢』24 (1997), 106~107 쪽. 친곡서원은 1573년 (宣祖 6)에 사액되었으며, 1606년 重賜額되었다

102) 『日記』 권7, 1559년 2월 16일

103) 이문건은 이로 인하여 크게 상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 목사가 서원에 동행할 것을 청하여도 병을 핑계로 사양하는가 하면, (1561년 윤5월 26일) 서원에 속하였던 安奉寺를 되돌려 받았다.(1561년 9월 20일)

이들인 이현배가 성주목사로 부임한 후 重修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重修를 거쳐 지금까지도 星州李氏의 願堂으로서의 오랜 인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문건이 훈구세력 출신으로 새로이 흥기하는 士林派의 道學的인 성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지역적 특수성을 내세우는 이문건의 시도는 講明道學의 場으로서의 서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과의 명분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봉서원의 건립과정을 통하여 16세기에 이미 서원의 성립에 제향인물 위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¹⁰⁴⁾ 또한 향촌사회의 사족들이 道學을 우선으로 하여 기존의 향촌 질서를 변화시켜가는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이문건이 그의 생애를 통해 확보된 人的 交遊網을 배경으로 하여 仕宦·流配생활을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 운영하였으며, 또한 성주 인근 지방관과 鄉村士族層들 내에서도 일정한 지위를 확보해가는 그의 교유활동의 성향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士族들의 교유와 交遊網의 형성은 중앙에 편중된 다양한 정보를 경향 각지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이었으며, 또한 각자가 지향하는 사회적·政治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유 활동은 생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오랜 성주에서의 謫居 기간 동안 이문건은 가문의 부흥을 위하여 후손의 敎育과 경제적 富의 축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槐山에 入鄉處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성장과정에서 확보한 人的 交遊網을 통하여 중앙의 정보와 경제적인 지원 등을 받으면서 유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향촌 사회 내에서 이문건은 중앙관직을 역임하고 권력에 밀접한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물로서 인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104) 정만조, 「퇴계이황의 서원론」, 385 쪽

있다.

성주지역 향촌사족 특히 동성사족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문건을 비롯한 星州李氏들은 기존의 불교 사찰을 門中の 影堂으로 사용하는 단계로부터 儒敎的 敎育기관인 書院을 건립하여 先祖를 享祀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문건은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人的 交遊網, 학문적 소양 등을 바탕으로 16세기 중반 이후 괄목할 성장을 지속하던 영남지역 사족 세력의 성장에 동반하여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향촌사족의 결집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書堂·書院의 건립이 확대되는 사회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鄉村 士族과 地方官의 동의 하에 星州李氏 影堂祭를 合儒敎的인 祖先의 祭享으로 변화하는 한편 지역 유생들의 독서처를 마련함으로써 향촌사족의 학문적 중심으로서의 입지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1555년 성주목사로 부임한 盧慶麟은 白雲洞書院의 활약상에 고무되어, 젊은 士人들이 공부할 수 있는 講學處를 마련하고 더불어 鄉賢의 향사를 위한 祠宇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초기 서원은 일향사람들에 의해 발의·창건·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계의 서원론에 기초하여 대체로 一鄉의 사람 공론에 의해 피봉사자의 문인 향인, 후손의 협력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에 성주의 대표적인 토성인 성주이씨의 文烈公 李兆年, 文忠公 李仁復 등 鄉賢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李滉 등과의 논의를 통하여 진행되던 서원건립계획은 이조년의 영정에 염주가 들려져 있다는 이유로 이론이 제기되면서, 享祀에 대한 퇴계의 견해도 점차 道學爲主로 변화되어갔고, 1560년 黃俊良이 성주목사로 부임하면서 결국 文敬公 金宏弼을 獨享하게 되었다.¹⁰⁵⁾

서원의 享祀에 대한 논의와 서원에서 성주이씨 세력이 배제되는 일련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이문건은 크게 상심하였으나, 결국 사람세력의 반발로 李兆年, 李仁復, 李崇仁은 서원 옆의 忠賢祠에 모시게 되었다. 安奉影堂은 1581년에 이염의 아들인 이현배가 성주목사로 부임한 후 重修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重修를 거쳐 지금까지도 星州李氏의 願堂으로서의 오랜 인연을 계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문건을 중심으로 성주이씨가 초기 주도하였던 서원 건립 계획은 이문건의 사회적·政治的 활동과 人的 交遊網에 힘입은 바 컸으나, 이문건 등의

105) 영봉서원 건립과정에서의 사람들 간의 논의와 퇴계의 서원론이 변화 정립되어가는 과정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는 후일 별도의 원고를 통하여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훈구 세력 출신이 새로이 흥기하는 士林派세력의 道學的인 성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지역적 특수성을 내세우는 이문건의 시도는 講明道學的의 場으로서의 서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림과의 명분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변화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족간의 교유망 역시 學問的 系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星州文化院, 『譯註 京山志』, 2000.
- 宋 純, 『俛仰集』, 卷.
- 李文樞, 『默齋日記』上·下,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97.
- 李 滉, 『退溪全書』권12, 권20, 권42.
- 金武鎭, 「朝鮮時代 星州의 教育體制」, 『韓國學論叢』24, 1997.
- 金武鎭, 「朝鮮前期 星州 鄉村社會의 構造와 支配層 動向」, 『韓國學論叢』18, 1991.
- 金素銀, 「16세기 兩班 士族의 수입과 경제생활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崇實史學』15, 2002.
- 金素銀, 「16세기 兩班家의 婚姻과 家族關係 - 李文樞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97, 2001.
- 金素銀, 「李文樞의 生涯와 默齋日記의 構成」, 『洪景萬教授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2002, 144 쪽
- 金素銀, 「李文樞家의 경제운영과 지출-槐山入郷을 關連하여」, 『古文書研究』21, 2002.
- 김현영, 「조선시기 ‘사족지배체제론’의 새로운 전망16C 慶尙道 星州지방을 소재로 하여」, 『韓國文化』23, 1999.
- 문희순, 「이문건의 목휴창수와 수창시의 특성」, 『한국언어문학』48, 2002, 31~70 쪽
- 朴翼煥, 「麗末鮮初 留郷所의 지방자치적 기능과 성격변화」, 『國史館論叢』55, 1994.
- 박현순, 「16세기 士大夫家의 親族秩序 - 李滉집안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07, 1999.
- 李東熙, 「朝鮮初期 官人層 研究 - 高麗와 朝鮮 支配勢力間의 關係 규명의 일환으로」, 『국사관논총』72, 1996.
- 李成茂, 「朝鮮時代 鄉村支配勢力의 推移」, 第6回 國際學術大會論文集 『韓國學의 世界化』 I,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1990, 430쪽.

- 이성업, 「16세기李文樞家の 收入과 經濟生活」, 『國史館論叢』97, 2001.
- 이수건, 「향촌지배세력의 교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서울: 민음사, 1989, 319쪽
- 이수건, 「書院의 歷史와 그 所藏資料」, 『玉山書院誌』, 대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6~52쪽,
-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 이수환, 「서원건립 활동」,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1994, 280~286쪽
- 이태진, 「사림세력의 활동-향촌질서의 재편운동」,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264쪽.
-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광주: 전라문화총서4, 2001.
- 정만조, 「조선 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문』8, 국사편찬위원회 1980, 51쪽
- 정만조, 「퇴계이황의 서원론」,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384쪽
- 정진영,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 1990.
- 정진영, 「조선시대 지방양반들의 일상생활」, 『고문화』53, 1999.
- 최이돈, 「16세기 사림 중심의 지방정치 형성과 민」, 『역사와 현실』16, 1995, 201쪽
- 최종택, 「조선초 향촌지배세력의 역학구도」, 『국사관논총』92, 2000, 224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CD-ROM 司馬榜目』, 1997.

● 투고일 : 2003. 4. 14

● 심사완료일 : 2003. 5. 20

● 주제어(Key words): 이문건(Lee, Mun-Gun), 교유망(interchange network), 성주(Sungju), 경제적 토대(economic support), 迎鳳書院(YoungBongSeowon)